

김유신(595~673)활동의 사상적 배경

金 福 順*

<目 次>

- | | |
|------------------|---------------------|
| I. 머 리 말 | 3. 병법서의 수련 |
| II. 김유신의 사상형성 과정 | III. 김유신 활동의 사상적 배경 |
| 1. 庾信의 영향 | IV. 맺 음 말 |
| 2. 임전무퇴의 家訓 | |

[국문초록] 김유신은 전투에 나가서는 장수로서 조정에 있으면서는 재상(出將入相)으로 활동한 一統三韓의 주역이었다. 그는 확고한 사상적 배경 하에 활동하였을 것이다. 이에 이미 그의 신앙이 미륵신앙이라는 고찰과, 그의 사상이 유학적인 배경이었다는 견해, 그리고 도교 방술가적인 배경이었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렇게 그는 사상적으로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이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그의 활동상을 세밀히 살펴 본 결과 유·불·도의 측면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상적 배경을 밝힐 수 있었다.

김유신은 성장하면서 세 부류의 영향을 받았다. 하나는 그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중국 庾信의 영향, 둘은 臨戰無退의 영향, 셋은 병법서의 수련이다. 특히 임전무퇴는 그가 가훈으로 까지 정하여 실천하였던 덕목이었다. 그는 스스로 총과 효로서 기약을 하여 싸움에 나아가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을 맹서하였고, 당시 신라의 장졸들에게 그 실천이 역설되었던 내용이다. 그는 무장으로서 손무병법과 위료병법 등 병술서에 달통하여 그의 활동에 이를 활용하였다. 즉 김유신은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구체적인 병법들에 달통함으로써 훌륭한 장수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무열왕과 문무왕을 섬기면서 군령권을 가진 대장군으로서 결과적으로 일통삼한이라는 꿈을 이룬 것이다.

김유신이 살았던 시대는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국제적 환경이 요동치던 때였다. 그의 젊은 시절은 주로 수나라가 중국을 지배할 때였다. 그는 특히 수유학승 원광법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탄생에서부터 『개황록』에 이르기까지 수나라와의 관련성이 보이고 있다. 그의 가문과 관련하여 전해오는 『개황록(력)』은 수나라 문제의 연호 개황을 따서 편찬한 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원광법사 등 수유학승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원효 등 반당의

*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식이 투철하였던 인물들과도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 김유신 역시 혼란한 국내외적인 정세 속에서 신라를 지키고자 하는 결의가 강하였다. 수대의 유학승 등의 영향을 받아 이룬 그의 사상적 무장이 이후 나당연합과 전쟁에 있어 신라를 보위하는 자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영문초록] Kim Yoo Shin, as a commander in the war and a prime minister in the government, was a hero in the unification of three ancient Koreas. Undoubtedly, he acted under his strong faith. Thus, many existing studies indicate that the background of his thought is “Mireuk religion”, Confucianism, and Taoism. In fact, his thought has the various backgrounds. However, when I examined minutely his activities, I could find other backgrounds of his thought in addition to those indicated in the existing studies .

Kim Yoo Shin, by growing into a man, was influenced by the three elements. The first was the influence by “Yoo-Shin” in China. For instance, his name was taken from Chinese “Yoo-Shin.” The second was the spirit of “knowing no retreat at a battlefield.” The third was the study of the various tactics. In particular, “knowing no retreat at a battlefield” was the most important virtue in his family precepts. He pledged the spirit of “knowing no retreat at a battlefield”, on the basi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This spirit was emphasized to the Shilla soldiers. Also, he was well versed in the various tactics such as “Son-Moo Tactics” and “Weeryo Tactics.” Therefore, he could be a great commander. Finally, he realized his dream for the unification of three ancient Koreas by serving “King of Muyul” and “King of Munmu.”

The era where he lived was a transitional period from Soo dynasty to Dang dynasty. When he was young, Soo dynasty ruled the mainland of China. Therefore, he was deeply influenced by “Wonkwangbupsa” who studied in Soo dynasty. His story is actually closely related to Soo dynasty when we see the record about his birth and the 『Gaewhangrok』 where his family stories are explained. The 『Gaewhangrok』 is a book published by taking its title from the reign-style of the “Emperor of Moon” in Soo dynasty. Moreover, he was influenced by the Buddhist priests including “Wonkwangbupsa” and had close relationships with “Wonhyo” who was characterized as the intellectuals who disliked Dang dynasty. Kim Yoo Shin really wanted to protect Shilla when his country wa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plunged in confusion. In sum, his thought influenced by the Buddhist priests who studied in Soo dynasty was connected to the independent spirit to protect Shilla in the coalition and the war between Shilla and Dang.

[주제어] 유신 활동의 사상적 배경(the Background of Kim Yoo Shin's Thought), 庾信(Chinese “Yoo-Shin”), 臨戰無退(the spirit of “knowing no retreat at a battlefield”), 병법(tactics), 원광법사(Wonkwangbupsa), 『개황록』(『Gaewhangrok』), 수·당교체의 전환기(a transitional period from Soo dynasty to Dang dynasty)

I. 머리말

김유신은 전투에 나가서는 장수로서 조정에 있으면서는 재상(出將入相)으로서의 면모를 보인 일통삼한의 주역이었다. 그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나름의 사상적 배경이 있었다. 이미 그의 신앙을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고찰과, 그의 사상이 유학적 배경이었다는 견해, 도교 방술가적인 배경이었다는 연구가 있었다.¹⁾ 이렇게 그는 사상적으로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이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그의 활동상을 세밀히 살펴본 결과 그는 유·불·도의 측면과 함께, 구체적인 덕목으로 드러나는 사상적 배경을 찾을 수 있었다.

본고는 먼저 김유신이 성장하면서 그의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크게 세 부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각각의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즉 庾信의 영향, 임진무퇴의 가훈, 병법서의 수련 등이 그것이다.

그가 활동하였던 시대가 수당이 교체하던 요동치던 국제적 환경 하에 있었으므로, 이에 주목하여 시대적 환경과 신라를 보위하고자 한 김유신의 결의, 『개황록(력)』의 편찬 등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II. 김유신의 사상 형성 과정

1. 庾信의 영향

김유신은 그의 아버지가 『周書』에 立傳되어 있는 庾信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본떠서 지은 이름이다. 때문에 그는 성장하면서 중국의 庾信이라는 인물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이며, 그의 사상 형성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舒玄이 庚辰 일 밤에 형혹성과 진성 두 별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 萬明도 역시 辛丑일 밤 꿈에 동자가 금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방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임신을 하여 20개월 만에 유신을 낳았다. 이때가 진평왕 建福 17년으로, 隋 文帝 開皇 15년 乙卯(595)였다. 이름

1) 김영태, 「김유신의 통일외지와 미륵신앙 -용화향도와 난승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14, 1989; 주보돈, 「김유신의 정치지향」 『신라사학보』 11, 2007; 김태식, 「방사로서의 김유신 -도교교단으로서의 화랑탐구를 겸하여-」 『신라사학보』 11, 2007.

을 지으려 할 때, 부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庚辰일 밤에 吉夢을 꾸어 이 아이를 얻었으니 마땅히 이름을 삼아야 한다. 그러나 『예기』(曲禮, 取名之法)에 날이나 달로 이름을 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제 庚이 庚字와 서로 비슷하고, 辰이 信과 음이 서로 가깝다. 더구나 옛날 어진이로 유신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그렇게 이름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하고 드디어 이름을 유신이라 하였다.²⁾

김유신의 아버지인 김서현이 유신으로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 그가 중국문화에 대한 일정한 이해와 상당한 수준의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선망하여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³⁾

그런데, 『주서』⁴⁾ 권41, 열전33, 『유신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라기보다는 驃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를 지내 ‘庚開府’로 통칭된 경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信幼而俊邁 聰敏絕倫 博覽群書 尤善春秋左氏傳”으로 그의 인물됨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많은 책들을 폭넓게 본 학자로서 특히 『춘추 좌씨전』에 능통하였던 정치가였다. 또한 『哀江南賦』를 지은 문장가로, 역시 역대 군주들의 治亂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다.

중국의 유신은 『주서』외에도 『북사』 권83, 열전71에 또한 立傳되어 있다. 이 권83은 『文苑』편으로 문장가들을 모아 놓은 열전이다. 앞서 권81과 권82는 『儒林』상·하 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는 유학자라기보다는 『哀江南賦』를 지은 문장가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유신이 임금에게 올린 진언 가운데 중국 고대의 제왕에 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이⁵⁾ 혹 庚信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중국의 庚信이 김유신에게 끼친 영

2)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3) 이문기, 『금관가야계의 시조 출자전승과 칭성의 변화』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삼국사기 열전을 통해 본 신라의 인물-』 25, 2004, p. 24; 후보돈, 위의 논문(2007), pp. 23~24.

4) 『주서』는 동위·서위가 분열되어 양견의 수가 주를 대신하게 되는 534년에서 581년까지의 48년 간의 서위와 북주의 역사를 다룬 사서로서 당나라 태종 정관 10년인 635년에 舍狐德菜이 주편하여 완성하였다.

5)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에는 선덕왕 16년 비담의 亂 때, 유신이 왕에게 “吉凶은 無常하여 오직 사람이 하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紂는 붉은 새가 모임으로써 망하고, 魯나라는 기린을 잡음으로써 쇠약해졌으며, 高宗은 평이 옳으로써 일어나고, 鄭公은 龍이 싸움으로써 창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덕이 요사를 놀려 이길 수 있으니, 星辰의 變異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왕은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한 부분과, 유신이 압량주 군주로 있을 때 백제를 치려 하자, 진덕여왕이 걱정하므로, “싸움의 승부는 세력의 대소에 있지 않고 그 인심의 어떠함을 보아야 합니다. 紂는 역조의 인민을 가지고 있지만 인심과 덕이 떠나니, 周의 10亂이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같이함만 같지

향력은 유학자로서 보다는 경세가, 문장가로서의 경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臨戰無退의 家訓

김유신은 자신이 家訓으로까지 삼은 臨戰無退를 비롯한 원광법사의 世俗五戒가 사상형성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⑥ 처음 문무왕이 고구려의 부흥군을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점거하여 소유하니, 唐 高宗이 크게 노하여 군사를 파견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 … (672년) 당나라 군사가 말갈병과 함께 우리 군사가 아직 陣을 치지 못한 틈을 타서 공격하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장군 曉川과 義文 등이 죽었다.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裨將으로서 나아가 싸우다 죽으려 하니, 그를 보좌하는 담릉이 말리며 “대장부는 죽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죽을 경우를 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 만일 죽어서 성과가 없다면 살아서 후에 공을 도모함만 같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원술이 대답하기를 “남아는 구차롭게 살지 않는 것이다. 장차 무슨 면목으로 우리 아버지를 보겠는가” 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가려고 하니 담릉이 고삐를 잡아당기며 놓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 죽지 못하고, 上將軍을 따라 무이령으로 나오니 당나라 군사가 추격해 왔다. 거열주대감 아진함 일 길간이 상장군에게 “공등은 힘을 다하여 빨리 가라. 내 나이 이미 70이니 얼마나 더 살 수 있으랴? 이때야말로 나의 죽을 날이다” 하며, 창을 비껴들고 적진으로 달려들어 전사하였는데, 그 아들도 따라 죽었다. 대장군 등이 소로길로 나서서 서울에 들어왔다.

대왕이 듣고 유신에게 “군사의 실패가 이러하니 어찌할 것인가” 하자 대답하기를 “唐나라 사람들의 謀計를 헤아릴 수 없으니 將卒들로 각기 要害處를 지키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원술은 왕명을 욕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家訓을 저버렸으니 베어야 합니다” 하였다. 대왕이 “원술은 裨將인데, 혼자에게만 중한 형벌을 시행함은 불가하다” 하고 용서해 주었다. 원술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감히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시골에서 숨어지내다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어머니를 뵙기를 청하였다. 어머니가 “부인은 三從之義가 있다. (내가) 지금 과부가 되었으니, 아들을 따라야 하겠지만, 원술 같은 자는 이미 先君에게 아들노릇을 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하고 만나보지 아니하였다. 원술이 통곡하며 가슴을 두드리고 땅을 구르면서 차마 떠나지 못하였으나, 부인은 끝내 만나지 않았다. 원술이 탄식하며 “담릉의 그르친 일로 이렇게 까지 되었다” 하고 이에 태백산으로 들어갔다. 을해년(675)에 당나라 군사가 와

못했습니다. …”고 한 예를 들 수 있다.

서 매소천성을 치니, 원술이 듣고, 죽어서 전의 수치를 씻으려 하여 드디어 힘써 싸워 공과 상이 있었다. 부모에게 용납되지 못한 것을 憤恨히 여기어 벼슬하지 않고 한세상을 마쳤다.⁶⁾

위의 사료는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裨將, 즉 장군을 보좌하는 부장으로 672년에 벌어진 唐나라와의 전투에 참가하였을 때, 사정상 후일을 기약하고 전장에서 물러난 것이지만 부모님에게까지 용납되지 못한 유명한 일화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 전투에서 신라 장군 효천과 의문이 죽고, 거열주 대감 아진함 일길간도 70의 나이에 전사하였다. 반면에 원술은 담릉의 만류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조용히 서울로 돌아온 것이다. 문무왕이 원술이 비장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였으나, 김유신은 가훈을 저버린 자식이어서 목을 베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진언하고 있다.

이 때 김유신이 언급한 그 ‘가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그가 가훈을 언급하게 된 배경이 원술이 전투에 임하여 용감하게 싸우지 않고 물러났기 때문에 나온 말이므로, 그의 가훈에는 반드시 임전무퇴의 내용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임전무퇴를 그의 가훈으로 삼았을 정도였다면 그 역시 화랑 때부터 임전무퇴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실천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建福 51년 己丑 가을 8월에 왕이 이찬 任永里와 파진찬 龍春 白龍, 소관 大因 舒玄 등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낭비성을 쳤다. 고구려 사람들이 군사를 출동하여 맞받아 치매 우리 군사가 패배하여 죽은 자가 많고 사기가 꺾이어 다시 싸울 마음이 없었다. 유신이 당시 중당당주로 있었는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투구를 벗고 고하기를 우리군사가 패하였습니다. 제가 평생 충과 효로서 살기를 스스로 기약하였으니 전쟁에 임하여 용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듣건대 ‘옷깃을 들면 옷이 발라지고 버리를 당기면 그물이 찢인다’고 하니 제가 그 버리와 옷깃이 되겠습니다” 하고는, 말에 올라 칼을 뽑아들고 참호를 뛰어 넘어 적진을 들락날락하면서 적장의 머리를 베어들고 돌아왔다. 우리 군사들이 보고 이긴 기세를 틈 타 맹렬히 공격하여 5천여 명을 목을 베고 1천 명을 사로잡으니, 성 안에서는 공포에 떨어 감히 대항하는 자가 없이 모두 나와서 항복하였다. ⁷⁾

6)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 하.

7)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이 부분은 대체로 내가 강령이 되겠다(吾其爲綱領乎)는 그의 말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그에 앞서 ‘내 평생 충과 효로서 살기를 스스로 기약하였으니 싸움에 임하여 용감하지 않을 수 없다(吾平生以忠孝自期, 臨戰不可不勇)’고 한 부분을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강령이 되겠다는 것은 盖聞 즉 ‘대개 들으니’, ‘듣건대’ 정도로 표현되어 있어, 自期라고 하여 ‘그 스스로 충과 효로 기약’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말의 강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광법사의 세속오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쓴 말임을 알 수 있다. 즉 事君以忠과 事親以孝의 충과 효, 그리고 臨戰無退의 임전불가불용이 그대로 녹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김유신이 말하는 가훈은 ‘충과 효로서 스스로 기약하여 임전무퇴’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된다.⁸⁾

그가 전투에 임하여 임전무퇴를 작전으로 행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㉔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침입하여 무산, 감물, 동잠 등 3성을 포위하므로 왕이 유신을 보내어 보병과 기병 1만을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였다. 김유신이 애써서 싸우다가 기운이 다해졌다. 김유신이 비령자에게 이르기를 “오늘의 사태가 위급하여졌으니 그대가 아니면 누가 군사들의 사기를 격려할 수 있겠느냐”하니 비령자가 절을 하며 말하기를 “명령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드디어 적진으로 달려가니, 그의 아들 거진과 그 집 노비 합절이 비령자의 뒤를 따라 적의 칼과 창을 맞받아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군사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감격되어 서로 앞을 다투어 나아가서 적의 군사를 크게 깨뜨리고 3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⁹⁾

진덕여왕 원년인 647년 백제와의 전투에서 비령자, 거진, 합절이 臨戰無退 즉 물러나지 않고 싸움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인 원술이 이러한 임전무퇴의 정신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로서는 가훈으로까지 정해놓은 임전무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신의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장년이 되어서도 화랑 때부터 기약해 온 臨戰無退 사상을 얼마나 철저히 실천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8) 이미 그의 가문은 3대로 군주를 지낸 무장집안으로 조부 때부터 임전무퇴를 중시하여 가훈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으나, 성문화된 것은 원광의 영향 이후로 생각된다.

9)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그런데 김유신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이미 신라인들에게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보이고 있다. 즉 황산벌에서의 전투가 신라 측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김흠순이 그의 아들 반굴에게 “신하된 자로서 충성만한 것이 없으며, 자식으로서는 효도만한 것이 없다. 나라의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충과 효를 모두 완전히 할 수 있다”고 하자, 반굴이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 힘써 싸우다가 죽은 일이 있었는데,¹⁰⁾ 이는 당시 신라인들에게 충·효와 함께 임전무퇴가 가장 우선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그에게 혼연히 복종하여 용화향도라고 불렀다 한다.¹¹⁾ 김유신의 무리를 미륵을 의미하는 용화향도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의 무리가 신라의 미래를 밝혀줄 무리로 촉망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 때가 609년으로, 원광법사가 수나라에 『결사표』를 쓴 608년의 이듬해에 해당되는 때이다. 화랑으로서의 김유신은 600년에 신라로 귀국한 원광이가슬갑에서 귀산과 추항에게 주어 이후 화랑들의 5계로 정착된 원광법사의 가르침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임전무퇴는 그가 무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었음은 이미 확인하였다.

실제 신라는 진평왕대 이후 화랑도의 세속오계 중에서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음으로써 목숨을 잃은 예가 수없이 전하고 있다. 귀산과 추항은 물론이고, 찬덕과 해론, 눌최, 그리고 김흠순에 이르기까지 『삼국사기』 권44, 권47에 무수히 실려 있다. 흔히 ‘순국지상주의’라고까지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7세기 삼국전쟁에 참여하였던 이들은 강렬한 국가의식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싸우고자 했던 임전무퇴의 불굴의 전투의지가 특징적인 의식세계로 규정지어지기도 한다.¹²⁾

3. 병법서의 수련

김유신은 17세 때인 611년에 고구려·백제·말갈이 번갈아 국경을 침입하는 것을 보고 비분강개하여 적을 평정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홀로 중악 석굴이 들어가 기도를 올린 바 있다. 이른바 난승 노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는 方術을 원하였고, 秘法을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건복 29년, 612년에 열박산

1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제5, 태종무열왕 7년조.

11)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12) 강종훈, 『7세기 통일전쟁기의 순국인물 분석』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5, 2004, pp. 144~145.

심심산곡을 홀로 보검을 가지고 들어가 역시 수련과 기도를 한 일이 있었다. 그의 나이 18세 되던 임신년으로 이 검술공부를 마치고 그는 국선이 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¹³⁾

이 때 김유신이 받은 비법에 대해 여러 언급이 있었다. 김영태는 난승에 주목해서 미륵신앙을 언급하고 있고, 김태식은 방술에 유의해서 도교 방술가로서의 언급을 하고 있다.¹⁴⁾ 그런데 김유신은 특별히 도교의 술수를 부리거나 불교의 교리만을 가지고 활동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신라를 외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두 수용하였다. 때문에 그는 유학뿐 아니라, 도교, 불교와 관련된 면모가 보여진 것이다.¹⁵⁾

그렇다면 그가 받아 활동하는데 썼던 秘法은 무엇이였을까.

아마도 그것은 손자병법과 같은 병법서들이 아니었을까 한다.

김유신의 전기를 비롯하여 그가 언급한 말들을 모아 놓고 볼 때, 그는 병법에 달통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흔히 『무경칠서』¹⁶⁾로 모아져 있는 병법서 가운데 특히 「손무병법」과 「위료병법」 등에 나오는 내용을 그의 활동양상과 비교해서 언급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손무병법」에 나오는 내용이 차용된 첫 번째 예이다.

김유신이 압량주군주로 있으면서 대야성 탈환을 계획하자, 여왕이 “적은 군사로써 많은 군사와 접촉하다가 위급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는가?(以小觸大 危將奈何)”라고 물은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유신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동향여부에 달렸을 뿐입니다. … 지금 우리는 한 뜻으로 결속되어 생사를 같이할 만하므로 저 백제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兵之勝否 不在大小 顧其人心何如耳. … 今吾人一意 可與同死生 彼百濟者 不足畏也)”라고 답한 사실이 보인다.¹⁷⁾

이 부분은 손무병법 謀攻편에 나오는 전쟁 승리의 5가지 요인(知勝有五)의 내용

13) 『삼국유사』 권1, 「김유신」 조.

14) 김영태, 위의 논문, pp. 19~23; 김태식, 위의 논문, pp. 84~88.

15) 유학은 주보돈, 도교는 김태식, 불교는 김영태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16) 『무경칠서』는 손무의 『손자』, 오기의 『오자』, 태공망의 『육도』, 황석공의 『삼략』, 진양저의 『사마법』, 위료의 『위료자』, 이정의 『이위공문대』 등 7가지 병서를 한데 모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1987년에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성백효·임홍빈 등이 번역하여 펴낸 『무경칠서』를 텍스트로 삼아 사용하였다. 이 본에는 「손무병법」, 「오기병법」, 「육도」, 「삼략」, 「사마법」, 「위료병법」, 「이위공문대」로 번역되어 있는 바 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하 『무경칠서』로 생략해서 표기함.

17)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이 많이 담겨져 있다. 즉 1)싸워야 할 때와 싸워서 안될 때를 명확히 판단할 줄 아는 자는 승리한다(知可以戰與不可以戰者勝), 2)병력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능숙하게 지휘할 줄 아는 자는 승리한다(識衆寡之用者勝), 3)상하가 일치단결되어 있으면 승리한다(上下同欲者勝), 4)장수가 유능하며, 군주가 작전에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將能而君不御者勝)는 것이 그것이다.¹⁸⁾

김유신은 석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 군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전운이 고조되는 시기를 잡았고, 진덕여왕이 작전을 믿고 맡겼음을 볼 때, 그는 이 모공 편에 나오는 승리의 요건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知彼知己하여 百戰不殆를 이룬 것이다.

두 번째 예이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하여 고전하고 있을 때 김유신이 소정방에게 식량을 전해주러 고구려에 갔을 때의 상황이다.

◎ 또 古記에 이르되 總章 원년 무진(668)에 국인이 청한 당나라 군사가 평양의 교외에 주둔해 있으면서 신라에 서신을 보내어 급히 군자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적국에 있는 당군 진영까지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요, 우리가 청해 온 당나라 군사의 군량이 다하였는데 이를 보내주지 못한다면 이 역시 마땅치 못한 일이다.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하였다. 유신이 아뢰되 “신 등이 능히 그 군량을 나를 수 있으니 청컨대 왕은 근심하지 마소서” 하고 유신과 인문 등이 수 만인을 거느리고 고구려 경내에 들어가 이 만석을 가져다주고 돌아오니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또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군과 회합하고자 김유신이 먼저 연기와 병천 등 두 사람을 보내어 그 회기를 물으니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종이에 난새와 송아지 두 물건을 그려서 보내왔는데 國人이 뜻을 풀지 못하므로, 사람을 시켜 원효법사에게 묻게 하였다. 그가 해석하여 말하기를 “속히 군사를 돌이키라는 뜻이다. 송아지와 난새를 그린 것은 돌이 끊어짐을 이룸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유신이 군사를 돌이켜 패강을 건너고자 명령을 내려 “뒤에 건너는 자는 목을 벤다”고 하였다. 군사들이 앞을 다투어 절반쯤 건넌을 때 고구려 군사가 쫓아와서 미처 건너지 못한 자들을 죽였다. 이튿날 유신이 군사를 돌려 고구려 군사를 추격하여 수만 명을 잡아 죽였다.¹⁹⁾

이 부분은 『손무병법』 가운데 九地편의 死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속전속결로 전병력이 용전분투하면 살아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멸당하는 지역을 사지라

18) 『무경칠서』, p. 15.

19) 『삼국유사』 권1, 『태종춘추공』조.

고 한다(疾戰則存 不疾戰則亡者 爲死地). … 사지에 처하였을 때는 전력을 다하여 결사적으로 싸워 죽음 속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死地則戰)”의 실천이다.²⁰⁾ 또한 전군을 절대 절명의 궁지에 몰아넣고 그들로 하여금 결사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장수의 임무라는 것이다. 위의 사료에 보이는 김유신의 행동은 死地에서의 장수의 임무를 방법에 따라 잘 이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 방어 전략에 관한 예이다.

672년 원술이 참가했던 사료 ⑤의 전투는 당장 고간이 이끌었던 석문전투였다. 고간은 신라군을 석문으로 유인하여 역습을 가해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또한 그 해 12월에는 白水城을 함락시키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문무왕은 “군사의 실패가 이러하니 어찌해야 하는가”하면서 크게 근심하였고, 김유신은 이에 대해 “당나라 사람들의 묘책은 헤아릴 수가 없사오니 장졸들로 하여금 각기 요소를 지키게 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건의하고 있다.

이는 수세에 몰린 군의 방어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무병법』을 찾아보면, 形편에 “수비에 능한 자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땅 속에 숨듯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아군의 역량을 깊숙이 은폐시킨다(善守者. 藏於九地之下)²¹⁾”는 대목과 많이 닮아 있다.

네 번째로, 김유신이 가장 많이 운용하였고 확실한 예는 『손무병법』의 用間편으로, 첩자의 활용인 정보전에 관한 부분이다.

신라의 군사작전이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김유신의 주변에는 늘 첩자들이 붙어 있었다. 때문에 그는 첩자의 꼬임도 많이 받았고, 또한 그가 상대국에 대해 첩자를 부리기도 하였다.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관련 사료들을 적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⑤ 나이 18세 되던 임신년에 검술을 닦아 국선이 되었다. 이때에 백석이라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가 있어, 여러 해 동안 낭도 중에 속해 있었다. 유신공이 고구려·백제 두 나라를 치려고 밤낮으로 깊이 피하고 있을 때 백석이 그 일을 알고 유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고 싶은 것은 당신과 함께 먼저 비밀히 적국을 정탐한 후에 일을 도모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유신이 기뻐하여 친히 백석을 데리고 밤에 떠나서 고개 위에서 막 쉬고 있을 때 두 여자가 나타나 유신을 따라 왔다. 骨火川에 이르러 유숙하매, 또 한 여자가 홀연히 왔으므로, 유신공이 세 낭자와 더불어 기쁘게 이야기하였다. 그때 낭자들이 맛있는 과자를

20) 『무경칠서』, p. 44.

21) 『무경칠서』, p. 16.

드리니 유신이 받아먹고 마음으로 서로 허락하고 그 정을 이야기 하였다. 낭자들이 고하되 “공의 말하는 바는 이미 알고 있다. 원컨대 공은 (잠간) 백석을 떼어두고 우리와 함께 수풀 속에 들어가면 다시 실정을 말하겠다”하고 이어 함께 들어갔다. 낭자들이 문득 귀신이 되어 말하기를 “우리들은 奈林·穴禮·骨火 등 3 곳의 호국신인데 지금 적국인이 유신을 유인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므로 우리가 만류시키려고 이곳에 온 것이다”고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아니하였다. 공이 듣고 놀라 쓰러지며 두 번 절하고 나와 골화관에서 유숙할 때 백석에게 이르기를 “지금 가면서 긴요한 문서를 잊었으니 함께 집에 돌아가서 가지고 오자”고 하였다. 드디어 함께 집에 돌아와서 백석을 결박하고 그 실정을 물었다. 백석이 말하되 “나는 본래 고구려인인데 우리나라의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신라의 유신은 우리나라 점쟁이 추남이 환생했다고 합니다. … 그날 밤에 대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현공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러 신하에게 이야기하니, 모두 추남이 맹세하고 죽더니 이 일이 과연 맞았다 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와서 이렇게 피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유신공이 백석을 처형하고 백미를 갖추어 삼신에게 제사를 지내니 모두 사람으로 현신하여 나타나 흠향하였다.²²⁾

㉔ 유신이 드디어 왕에게 청하여 떠날 기일을 정하였다. 이 때 고구려의 첩자인 중 덕창이 고구려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리었다. 고구려왕이 전날 춘추의 맹세하는 말을 들었고, 또 첩자의 말을 듣고 보니, 더는 머물러 두지 못하고 도리어 후하게 대접하여 춘추를 돌려보냈다.²³⁾

㉕ 2년 8월에 백제 장군 은상이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유신과 죽지·진춘·천존 등 장군들에게 명하여 나가 막게 하였다. 3군을 나누어 5길로 공격했으나 서로 이겼다 졌다 하여 열흘이 지나도록 해결이 나지 않아, 엮어진 시체가 들을 뒤덮고 흐르는 피에 방패가 떠다닐 지경이었다. 이에 우리 군대는 도살성 아래 주둔해 말을 쉬게 하고 군사들을 잘 먹이어 재차 진격할 계책을 도모하였다. 그 때 물새 한 마리가 동쪽으로 날아와서 유신의 군막을 지나가니, 장병들이 보고서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겼다. 유신이 “이것은 괴이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반드시 백제인이 정탐하러 올 것이니, 너희들은 거짓 모르는 체하고 누구냐고 묻지 말라”고 하였다. 또 군중에 널리 알리기를 “성벽을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말며, 내일 구원병이 온 다음에 결전한다”고 하였다. 첩자가 듣고 돌아가 은상에게 보고하니, 은상 등은

22) 『삼국유사』 권1, 「김유신」조.

23)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병력 증가가 있을 것이라 여겨 의혹과 두려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에 유신 등이 일시에 떨쳐 크게 이기고, 백제장군 달솔 정중과 사졸 100명을 사로잡고, 좌평 은상, 달솔 자견 등 10명과 군사 8,980명을 베고, 말 1만필과 투구·갑옷 1,800벌을 얻고, 다른 노획한 기계도 이런 정도였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길에서 백제의 좌평 정복이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므로 모두 놓아주어 갈 데로 가게 하였다.²⁴⁾

① 이에 앞서 조미압(租未押) 급찬이 부산현령으로 백제에 사로잡혀 가서 좌평 임자의 집 종이 되었다. 일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정성껏 하여 태만한 적이 없었다. 임자가 가엾게 여기고 의심하지 않아 마음대로 출입하게 하였다. 이에 도망해 돌아와 백제의 사정을 유신에게 고하였다. 유신은 조미압이 충성스럽고 정직하여 쓸 만함을 알고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임자가 백제의 국사를 전담한다 하니, 함께 의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대가 나를 위하여 다시 돌아가 이것을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공이 나를 불초하다 양으시고 시키시니 비록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백제로 들어가서 임자에게 고하기를 “제 스스로의 생각에 이미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나라의 풍속을 알아야겠기에 집을 나가 다니면서 수십일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와 말이 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왔습니다” 하였다. 임자가 믿고 책망하지 않았다. 조미압이 틈을 타서 고하기를 “전번에는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감히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은 신라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김유신이 저에게 이르기를, 다시 가서 그대에게 ‘나라의 흥망은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니, 만일 그대의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대가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내가 그대의 나라에 의탁하자’고 전하라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자가 듣고 묵묵히 말이 없었다. 조미압이 황공하여 물러나와 처벌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어 달 만에 임자가 불러서 묻기를 “네가 전번에 이야기한 유신의 말은 어떤 것인가” 하였다. 조미압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전에 말한 대로 대답하니 임자가 “네가 전한 말을 내가 잘 알았다. 가서 알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미압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아울러 백제국 안팎의 일을 정녕 상세하게 말하니, 이에 유신은 백제 병탄 계획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다.²⁵⁾

② 일찍이 유신이 한가위 날 밤에 자제들을 데리고 대문 밖에 섰노라니 갑자기 서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다. 유신은 그가 고구려 첩자임을 알고 불러 앞으

24)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25)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로 오게 하여 말하였다. “너희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 그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유신이 “두려워할 것 없다. 사실대로 고하라”고 하였는데 또 말하지 아니하였다. 유신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왕은 위로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아래로 인심을 잃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기뻐하여 모두 자기 생업을 즐기고 있다. 지금 네가 보았으니 가서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위로하여 보냈다. 고구려 사람들이 이를 듣고 “신라는 작은 나라지만 유신이 재상이 되었으니 가벼이 여길 수 없겠다”고 하였다.²⁶⁾

손자는 用間, 즉 정보전 편에서 영특한 군주와 현명한 장수는 일단 출병하면 전승을 거두고 남보다 뛰어난 공적을 세운다고 하였다.²⁷⁾ 그 까닭은 바로 사전에 敵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적정은 오직 적정을 아는 사람인 첩자를 통하여서만이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첩자에는 因間, 內間, 反間, 死間, 生間의 다섯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因間은 적국의 평범한 주민을 첩자로 이용하는 것이고, 內間은 적국의 관리를 매수하여 첩자로 이용하는 것이고, 反間은 적의 첩자를 매수하거나 역이용하는 것이고, 死間은 우리 측 첩자에게 허위정보를 주고 적방에 밀파하여 허위정보를 적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발각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므로 사간이라 하였고, 生間은 적국을 정탐한 후에 살아 돌아와서 적정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 5종류의 첩자를 동시에 활용하되, 적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한다면 이를 神紀라고 하며, 군주에게 가장 소중한 秘寶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⁸⁾

삼국은 모두 첩자의 활용에 적극적이었다. 고구려의 경우 백제에 침투하여 위협에 빠뜨린 개로왕대의 도림을 예로 들 수 있다. 고구려는 신라에도 역시 첩자를 활용하여 내부 사정을 정탐하였을 것이고, 병권을 쥐고 있던 김유신에게는 ㉑, ㉒, ㉓에 나오는 백석과 덕창, 그리고 이름없는 고구려의 첩자가 늘 옆에서 그를 정탐하고 있었다. 백제에서도 첩자를 활용하여 ㉔와 같이 김유신의 진영을 염탐하였다.

김유신은 이러한 첩자들을 잘 활용하여 백제와 고구려의 작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생간이라 할 수 있는 조미압의 활용은 압권이라 할 수 있다.

무열왕은 의자왕대에 말기적 현상을 예고하는 여러 번고가 백제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당에 청병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의자왕대의 백제의 사정이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다.²⁹⁾ 이는 신라에서 백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손바닥

26)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27) 『무경칠서』, p. 54.

28) 『무경칠서』, pp. 54~55.

들여다보듯이 환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라에서 백제에 대한 첩자의 활용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다음은 『위료병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첫 번째 예이다.

김유신은 비담이 난을 일으켰을 때, 여왕이 있는 월성의 자기진중으로 유성이 떨어져 상대방의 사기가 오르자,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연으로 하늘에 올려 보내고 떨어진 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은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사태를 역전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³⁰⁾

㉔ 네 번 접전에 모두 이겼으나 군사는 적고 힘은 지쳐서 결국 패하고 계백은 여기서 죽었다. 이때에 신라 군사는 당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나루 어귀에 육박하여 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돌연히 웬 새가 소정방의 군영 위로 빙빙 돌므로 사람을 시켜 점을 쳤더니 “반드시 원수님이 부상할 것이다”고 하므로, 소정방이 겁을 먹고 군사를 끌어들이 싸움을 그만두려 하였다. 김유신이 소정방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는 새의 요괴스러운 일 때문에 하늘이 주는 기회를 놓칠 것인가? 하늘과 사람의 의사에 따라 죄악을 정벌하려는 때에 나쁜 조짐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하고는 곧 신비로운 칼을 뽑아서 새를 겨누어 치니 새가 떨어져 소정방의 좌석 앞에 떨어졌다. 그제야 소정방이 강 왼쪽 기슭으로 나와 산 밑에 진을 치고 싸우니 백제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³¹⁾

또한 ㉔에 의하면 나당연합군의 사비성 공격을 앞에 두고 소정방이 망설이는 이유를 안 김유신은 거침없이 소정방의 주위를 맴돌던 새를 베어버림으로써 의혹을 없애고 함께 진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료병법』 天官편에 보면, 위나라 양혜왕이 위료에게 황제가 둔갑법이 나 점성술 등의 刑德으로 백전백승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하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 가운데, “초나라 장수 공자 심이 제나라군과 싸울 때, 혜성이 나타나 그 꼬리가 제나라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공자 심의 측근 중의 한 사람이 ‘『천관서』에 따르면, 혜성의 꼬리가 가리키는 쪽이 승리한다 하였으니, 제군이 승리할 것이 틀림없습니다’라고 건의하자, 공자 심은 “혜성 따위가 무엇을 알겠느냐. 빛자루를 가지고 싸울 때에는 그 자루를 거꾸로 잡고서 상대방을 쳐야 이기는 법이다”고 하였고, 이튿날 공자 심의 초군은 제군과 싸워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황제도 신령을 믿거나 귀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먼저 내 자신의 지혜를 헤아리

29) 『삼국유사』 권1, 『태종춘추공』조.

30)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31) 『삼국유사』 권1, 『태종춘추공』조.

는 것이 낫다고 한 것은 『천관서』의 刑德이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능력껏 다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³²⁾

김유신은 『천관서』의 내용보다, 위료자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능력껏 다 해야 한다’는 쪽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위의 두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이다.

668년 6월 27일 문무왕은 서울을 떠나 고구려 출정길에 올랐다. 김유신은 풍병으로 출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 흠순과 인문에게 이르기를 “위로는 天道를 얻고, 아래로는 地理를 얻으며, 중간으로 人心을 얻은 후에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³³⁾ 그는 『위료병법』 兵談편에 나오는 “장수된 자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³⁴⁾는 내용과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유신은 장수로서의 역할을 『위료병법』 등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게 훈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의 예는 선덕여왕 14년의 일이다.

① 김유신이 백제를 치고 돌아와 아직 왕을 뵙지 못한 때에 백제의 대군이 또 변경을 침범하므로 왕이 그에게 명하여 막게 하였다. 그는 드디어 집에 들르지 못하고 곧 가서 이를 쳐 깨뜨려 적 2,000명의 목을 베었다. 3월에 왕에게 복명하고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할 즈음에 또 백제가 침범한다는 급보가 있었다. 왕은 일이 급한 까닭에 유신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存亡이 공의 일신에 달렸으니 수고로움을 꺼리지 말고 가서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유신이 또 집에 들르지 못하고 밤낮으로 군사를 훈련시켜 서쪽으로 떠날 때 길이 집 문 앞을 지나게 되었다. 집안의 남녀들이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으나 그는 돌아다보지도 않고 갔다.³⁵⁾

㉔ (선덕여왕 14년)을사년 정월에 돌아와서 아직 왕에게 뵙지도 못하였을 때, 국경을 지키는 관원이 급히 보고하기를, 백제의 대군이 와서 貫利浦城을 공격한다 하므로, 왕은 또 유신을 상주장군에 임명하여 가서 막게 하였다. 유신은 처자도 보지 않고 명을 받들고 곧 떠났다. 백제군을 요격하여 패주시키고, 2,000명의 목을 베었다. 3월에 돌아와 왕궁에 복명하고,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또 급보가 들어오기를, 백제군병이 그 국경에 출둔하여 크게 군사를 들어 우리를

32) 『무경칠서』, pp. 275~277.

33)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 하.

34) 『무경칠서』, p. 279.

3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제5, 선덕왕 14년조.

침범하려 한다고 하였다. 왕이 다시 유신에게 이르되, “공은 수고를 생각지 말고 빨리 가서 적군이 이르기 전에 대비하라” 하므로, 유신은 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군사를 조련하고 병기를 수선한 후 서쪽을 향해 떠났다. 이 때 그 집의 사람들이 모두 문 밖에 나와서 오기를 기다렸는데, 유신은 문 앞을 지나면서도 돌아다보지 않고 50보쯤 가다가 말을 멈추고, 漿물을 집에서 가져오게 하여 마시며 “우리 집 물이 아직도 예전 맛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군사들도 모두 말하기를 “대장군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이 어찌 골육을 떠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랴” 하였다.³⁶⁾

김유신은 선덕여왕 14년에 백제와의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된 까닭에 연이어 3번이나 전투에 나가게 되면서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나아가 승리한 유명한 내용이다.

그런데, 『위료병법』 武議편에 보면 “장수가 출전 명령을 받게 되면 그 날로 집안 일을 잊어야 하며, 군사를 거느리고 야전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친지를 잊어야 하며, 북채를 잡고 전투를 지휘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잊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³⁷⁾

이를 연관지어 본다면, 그가 출전명령을 세 번이나 받고 한 행동은 집안일을 잊고 적국과 싸울 것만을 생각해야 하는데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예는 이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유신은 임전무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아들 원술을 평생 보지 않고 지낸 사건에 관한 것이다.

『위료병법』 制談편에 보면, “신 위료의 병력통제방법대로 실행하면, 전군 장병들을 다스림에 있어 단 한사람도 형벌을 잘못 적용하여 처벌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자지간이라도 형벌을 서로 감싸 줄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남남끼리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있다.³⁸⁾ 이 사실에 견주어 본다면 김유신이 아들 원술을 용서하지 못한 행동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원술이 참가했던 672년의 이 전투는 신라가 당나라와의 결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벌인 석문전투였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신라는 처절하게 패배함으로써 이후 당과의 대결에 있어 수세적인 방어전략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 계기가 된 전투였다. 김유신으로서는 문무왕이 용서해주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신라군 전체를 이끄는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만을 용서하여 전 병력의 통제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36)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37) 『무경칠서』, p. 306.

38) 『무경칠서』, p. 282.

뿐만 아니라 신라에서는 성을 지키다가 지원군이 이르지 않자 성을 지키다가 순절한 찬덕·해론 부자와 심나·소나 부자와 같은 예는 『위료병법』 守權편에 “수성군이 결전의지를 버리지 않고 항전을 계속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守城의 요체이다.”³⁹⁾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병법의 달인이었던 김유신은 672년의 석문전투에서의 패배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이듬해인 문무왕 13년(673) 7월 1일에 죽음을 맞이하였다.⁴⁰⁾ 그는 상대등으로 군령권자로서 672년 석문전투에서 신라군이 당군에 참패당하자, 문무왕에게 신라군의 당군과의 전투를 수비전으로의 전환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신라군은 당군에게 단기적인 정면승부를 걸지 않고 각지의 요소를 지키는 방어전으로 전술을 선회하였으며, 전투의 소규모화, 잦은 전투횟수, 전국적인 산성의 축조로 그 양태가 나타났다.

그 이듬해에 8월에 문무왕은 서형산 아래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고 있다. 또 9월에는 영묘사 앞길에 행차하여 군대를 사열하고 아찬 설수진의 6진병법을 관람하고 있다.⁴¹⁾

이는 김유신이 대장군으로 군령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의 작전에 의해서 신라군을 움직였으나, 672년의 패배로 더 이상 그의 작전이 유효하지 못하였다. 그는 문무왕에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임금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⁴²⁾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당과의 전투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해처를 지키는 방어전의 방책과 함께, 진법의 혁신을 건의한 것이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김유신의 사상 형성과정은 첫째로, 태어나면서부터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친의 영향으로, 경세가로서의 (중국)유신의 행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는 出將入相 즉 장수로서 뿐 아니라 재상도 겸할 수 있었다.

둘째로, 원광법사의 세속오계에 큰 영향을 받아 충과 효로서 스스로 기약하여 임전무퇴를 실천하였고, 가훈으로까지 정하여 이를 어긴 아들 원술을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평생 굳건히 지키고자 한 것이다.

셋째로, 신라를 지키기 위한 임전무퇴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

39) 『무경칠서』, p. 298.

4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제7, 문무왕13년조; 권43, 『김유신전』 하.

4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제7, 문무왕 14년조.

4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제7, 문무왕13년조; 권43, 『김유신전』 하.

으로 병법서를 익히고 수련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삼국의 항쟁에서 이를 잘 활용하여 일통삼한을 이룰 수 있었던 장수였다.

Ⅲ. 김유신 활동의 사상적 배경

김유신의 사상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저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의 가문과 관련하여 『開皇錄(曆)』이라는 책명이 史書에 전하고 있다. 개황은 수나라 문제의 연호인데, 왜 그의 가문과 관련된 왕대력에 수의 연호를 제목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김유신은 출생도 진평왕 建福 17년, 수 문제 개황 15년 을묘(595)였다고 명기되어 있다.⁴³⁾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그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유신은 안으로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태종무열왕, 문무왕의 5조를 거쳤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수(581~618), 당(618~907)이 교체되는 전환기적 환경에서 살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의 활동에 보여지는 사상적 배경은 이러한 시대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595년에 태어난 김유신은 수가 망하고 신라가 621년에 새로운 파트너로 당을 택하였기까지 수의 영향력을 느끼고 살았을 것이다.⁴⁴⁾ 20~30년 간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대개 원광법사 등 수나라 유학승들이 국가를 주도하였던 때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원광이 수에 있을 당시인 개황 14년인 594년에 신라의 진평왕이 처음으로 수나라와의 통교를 시작하여 수의 고조(문제)로부터 ‘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을 제수받고 있다.⁴⁵⁾ 『隋書』의 ‘大業以來 歲遣朝貢’의 기사⁴⁶⁾와 611, 612년의 긴밀한 관계로 볼 때, 신라와 수나라와의 통교는 매년 긴밀히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는 38년으로 마감되기는 하였지만, 위진남북조의 정치적 혼란과 북

43)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44) 이계명, 「위징의 역사인식」 『위진수당사연구』 5, p. 2에 의하면, 위징 등은 수서를 관찬 사서로 편찬하면서 以隋爲鑑, 즉 수나라 시대에 전개된 여러 가지 혼란 상태를 명확히 살펴서 정상상태로 되돌림으로써 그것을 교훈삼자는 경세사학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수 양제는 589년 50만 대군의 원수로 남조의 진을 평정하고 매우 치세를 잘 하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물론 황태자로 되면서부터 음란·무도함을 드러내어 무리한 고구려 원정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평가는 가혹한 것이었다.

45)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평왕 16년조.

46) 『수서』 권81, 「열전」 제46,동이 신라전.

방민족의 남하를 극복한 강성한 제국이였다.

김유신이 19세 때인 613년에 수나라 사신 왕세외가 신라에 와서 황룡사에서 백고좌법회를 개최하였을 때 원광법사가 상수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인왕경』을 강경하여 호국의 의지를 불태웠을 당시의 정황을 볼 때, 이미 화랑으로서 원광의 가르침인 임전무퇴에 경도되어 있던 그로서는 매우 감명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김유신에게 있어서 수유학승인 원광법사의 영향은 다대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원광이 『걸사표』에서 “자기가 살려고 남을 멸하는 것은 승려로서 할 일이 아니나, 貧道가 대왕의 나라에서 대왕의 水草를 먹으면서 어찌 감히 명령을 좇지 아니하오리까”⁴⁷⁾ 하였던 점에서 신라인들의 자구의식을 확실히 볼 수 있고, 이러한 의식은 그대로 김유신에게로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로 수가 멸망하고 당이 건국됨으로써, 신라는 국제관계에 있어 수년간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수와의 관계에 있어 수유학승들이 그 통로였던 전철에 따라, 당과의 통교에 있어서도 자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위에 김춘추의 청병외교가 더해진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으나 태종 무열왕이 660년에 죽고, 663년 4월 계림주대도독부의 설치, 신라왕의 도독 임명, 웅진도독 부여융과 회맹 강요 등 반당 감정을 일으킬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668년 고구려 멸망 때까지 당군으로 인해 당한 신라의 고통은 대단한 것이었다. 반당감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이고, 신라까지 넘보려 하자 그 감정은 극에 달하였을 것이다. 이에 당과의 항전이 주창되었을 것이고 이를 주도한 층은 수유학승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승려들과 원효, 명랑 등이었을 것이다.⁴⁸⁾

김유신은 원효와의 관련 사실이 보이고 있다.

㉞ 또 군사를 일으켜 당군과 회합하고자 유신이 먼저 연기와 병천 등 두 사람을 보내어 그 회기를 물으니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종이에 난새[鸞]와 송아지 두 물건을 그려서 보내왔다. 國人이 그 뜻을 풀지 못하므로 사람을 시켜 원효법사에게 물었다. 그가 해석하여 말하기를 “속히 군사를 돌이키라는 뜻이다. 송아지와 난새를 그린 것은 둘이 끊어짐을 이룸이다”라고 하였다⁴⁹⁾

4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평왕 30년조.

48) 김복순, 『수당의 교체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43, 2006. 9, pp. 172~175.

49) 『삼국유사』 권1, 『태종춘추공』조.

死地에 처한 김유신의 행동에서 이미 보았던 사료의 일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김유신과 원효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서신을 원효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김유신이었을 것이다. 원효와 태종무열왕과의 깊은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김유신과의 관계 역시 긴밀하였을 것이다. 태종 무열왕은 일찍 갔지만, 김유신과 원효는 당과의 연합에 이어 당과의 대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효는 671년 당의 현장법사를 겨냥하여 『판비량론』을 간행함으로써, 신라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⁵⁰⁾

명량은 문두루비법을 행하면서 수나라 대에 보귀에 의해 역출된 『금광명경』을 텍스트로 써서 당군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귀의 8권으로 된 수대의 『금광명경』을 원효가 주석하고 있고 이 전통은 경덕왕대의 태현에게까지 이어져, 궁중에서 기우제를 위한 법회에서 역시 이 본을 텍스트로 쓰고 있다. 그런데 성덕왕대에 당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김사양이 『금광명최승왕경』을 당에서 들여와 경흥이 이를 주석하고 법회에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시대에 따른 달라진 법회의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⁵¹⁾

이들과 친분관계가 깊었던 김유신으로서는 자주국가로서의 신라가 서기 위해서는 당과의 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유신은 김춘추와의 결의동지로서 신라를 외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평생토록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至誠으로 임해 승리를 쟁취하였다. 특히 김춘추에 의한 당과의 연합으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어 고구려를 멸함으로써 일통삼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나라가 신라를 넘보려 하자, 문무왕으로 하여금 당에 대한 항전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 전에 이미 김유신은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하는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당에 대해 매우 당당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① 이 날(7월 9일) 소정방은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달하여 백제 군사를 맞아 크게 격파하였다. 김유신 등이 당의 군영에 이르자, 소정방은 유신 등이 기약 보다 늦게 왔다고 하면서 신라 독군 김문영을 군문에서 목 베려 하였다. 김유신이 무리에게 말하기를, “대장군이 황산전투를 보지 않고 기일에 뒤진 것을 죄로 삼으려 하니, 나는 죄 없이 치욕을 당할 수 없다. 반드시 먼저 당군과 결전을 하고 후에 백제를 부수겠다” 하였다. 이윽고 김유신은 도끼를 잡고 군문 앞에 섰는데 성난 머리털은 곳곳이 서고 허리춤에서는 보검은 저절로

50) 김복순, 『신라 중대의 불교』 『신라문화』 25, 2005, p. 175.

51) 김복순, 위의 논문(2006. 9), pp. 183~184.

칼집에서 튀어나왔다. 소정방의 우장 동보량이 소정방의 발등을 밟으며, “신라 군사가 변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고 하니, 소정방이 곧 문영의 죄를 풀어 주었다.⁵²⁾

㉔ 당나라군이 신라군과 연합하여 백제를 쳐서 멸하였다. 이 전쟁에서 유신의 공이 많았다. 당나라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포상하였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유신·인문·양도 세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황제의 명을 받아 적당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보게 되었으니, 지금 (싸워) 얻은 백제 땅을 공들에게 나누어 주어 식읍을 삼아 功에 대한 보수로 하려 하는데 어떻겠소” 하였다. 유신이 답하기를 “대장군이 귀국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 임금의 소망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았으니, 우리 임금이나 온 나라 臣民이 기뻐 날뛰느라 다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만이 주는 것을 받아 자신의 이익을 삼는다면 그것이 어찌 의리이겠습니까” 하고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⁵³⁾

㉕ 당나라 사람들이 백제를 멸한 다음, 사비에 진영을 베풀고 은밀히 신라를 침략하려고 꾀하였다. 우리 왕이 이것을 알고 여러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물으니, 다미공이 나와 말하였다.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백제인의 복장을 하고 적대할 듯이 하면, 당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공격할 것이니, 그로 하여 함께 싸우면 뜻을 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유신이 “그 말이 취할 만하니 청컨대 따르십시오” 하였다. 왕은 “당나라 군대가 우리를 위하여 적을 멸하였는데 도리어 싸움을 한다면 하늘이 어찌 우리를 도울 것인가” 하였다. 유신이 “개가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물어뜯는 것이니, 어찌 어려운 경우를 당하여 스스로 구할 방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대왕께서는 허락해 주소서” 하였다. 당나라 사람들이 우리 편의 대비가 있는 것을 정탐해 알고 백제왕과 신하 93명, 군사 2만 명을 노획하여 9월 3일 사비에서 배를 띄워 돌아가고, 낭장 유인원 등을 머물러 진영을 설치하고 수비하게 하였다. 소정방이 돌아가 포로를 바치니, 천자가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친김에 신라를 치지 않았는가” 하였다. 소정방이 “신라는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 섬기기를 부모와 같이 하니, 비록 (나라는) 작지만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⁵⁴⁾

5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제5, 태종무열왕 7년 조.

5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제7, 문무왕 11년 조.

54)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이 세 사료에 보이는 김유신의 태도는 당군을 불러 들여 백제를 친 신라의 장수 치고는 대단히 당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㉔에 따르면 소정방이 나당연합군이 만나기로 한 기일을 지키지 못한 죄를 독군 김문영에게 물어 죽이려 하자, 김유신은 황산전투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연합군인 당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뿐 아니라 ㉕에 보이듯이 김유신은 소정방이 당나라 황제를 대신하여 백제 땅을 식읍으로 주려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그리고 ㉖의 기록과 같이 당나라군이 백제를 멸하고 신라까지 도모하려 할 때, 김유신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더 이상의 행동을 못하고 돌아가게 한 것이다.

이후 신라는 당의 고구려 원정을 도와 많은 고역을 당하면서도 백제의 고지를 점차 점령해 나가는 등 당 태종과 김춘추와의 영토보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당은 신라까지 획책하기 위해 고구려를 치는데 필요한 물자의 수송 뿐 아니라 친당파를 조성하여 신라 내부의 정보를 염탐하였다. 김유신에게도 두 번에 걸친 회유가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麟德 2년인 문무왕 5년, 665년에 당 고종이 사신을 통해 김유신에게 奉常正卿平壤郡開國公의 작호와 식읍 2,000호를 제수한 것이다. 그는 이미 전해에 치사를 청하였으나 কে장만 하사받았던 때였으므로, 고구려 원정 때문에 신라에 공력을 들이고 있던 당은 그를 독려하여 신라로 하여금 당에 협조하도록 하였을 것이다.⁵⁵⁾

두 번째는, 총장 원년인 668년에 당황제가 영국공의 공로를 포상한 다음, 사신을 보내 우리가 군사를 보내 전투를 도운 노고에 대해 치하했으며 황금과 비단을 보내 주었다. 이와 함께 유신에게도 조서를 주어 포상하고 장려했으며, 당의 조정에 들어와 조알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⁵⁶⁾ 신라의 자주파로서 반당감정을 가지고 있는 김유신에 대한 회유와 함께 그를 장안으로 불러들이고자 획책한 것이다.

그런데, 新羅古傳에는 “소정방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치고 나서 다시 신라를 칠 계획으로 머물고 있더니 이때에 김유신이 그 계획을 알고 당나라 군사를 초대하여 독약을 먹임으로써 모조리 죽여 이를 구덩이에 묻었다”고 하였다. 지금도 상주지방에 당나라 다리가 있으니 이것이 그 때 묻은 자리라는 속설을 언급하고 있다.⁵⁷⁾ 물론 소정방이 이 때 죽지 않은 것을 별도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내용 속에는 김유신의 뿌리깊은 반당의식이 깔려 있어 이러한 전설을 만들어냈다

5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제6, 문무왕 4년, 5년, 6년 조.

56)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57) 『삼국유사』 권1, 『태종춘추공』조.

고 할 수 있다.

김유신의 뿌리깊은 반당의식이 원광을 비롯한 수유학승들과의 친연성으로 인해 수나라를 당에 대항하는 배경으로 삼은 것이 아닐까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유신은 그의 가문과 관련되어 『개황록(력)』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있다. 開皇은 수나라 문제의 연호로서 581~600년에 사용되어 졌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이 『개황록(력)』에 대해 이미 여러 학자들이 편찬시기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그의 성씨에 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김유신의 선조인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출자에 관한 내용 가운데,⁵⁸⁾ 천강 금란 출생설이 『개황록(력)』의 기록에 의한 것이다.

㉠ 김유신은 왕경인이다. 12世祖인 首露는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한다. 後漢 建武 18년 壬寅에 龜峰에 올라 駕洛의 9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 땅에 나라를 열고 가야라 불렀다. 뒤에 금관국으로 고쳤다. 그 자손이 서로 이어서 9세손인 仇亥에 이르렀다. 후 仇次休라고도 이르는데, 유신에게는 증조부가 된다. 신라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少昊 金天氏의 후예인 까닭에 성을 金으로 한다고 하였다. 庾信碑에서 또 이르기를 軒轅의 후예요 少昊의 자손이다라고 하였다. 그런 즉 남가야의 시조 수로는 신라와 같은 성이다. 조부 무력은 新州道 行軍總管이 되어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왕 및 그 장수 4인을 잡았고 1만여 수급을 배었다. 아버지 서현은 官이 蘇判 大梁州都督 安撫大梁州諸軍事에 이르렀다. 庾信碑를 살펴보면 考 蘇判 金道衍이라 하였다. 舒玄은 후 고친 이름인지, 후 道衍이 맞는 글자인가 의심하여 둘 다 둔다.⁵⁹⁾

㉡ 『개황록』에서 말하기를, 성은 김씨로 무릇 나라의 世祖가 金卵에서 태어났으므로, 金으로 성을 삼았다.⁶⁰⁾

㉢ 수로왕은 임인 3월에 알에서 태어나 이 달에 즉위하여 156년 간을 다스렸다. 金卵에서 태어났으므로 성을 金氏라 했다. 『개황록』에 실려있다.⁶¹⁾

㉣ 『개황록』에서 말하기를 “양 대중대통 4년 임자에 신라에 항복하였다”고 하였다.⁶²⁾

58) 이문기, 위의 논문(2004), p. 8.

59)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60)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

61) 『삼국유사』 왕력, 수로왕조.

62)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말미에는 거등왕부터 구형왕까지의 계보가 소개되어 있고, 『개황력』과 『개황록』이 인용되어 있다.

거등왕이 ‘국세조가 금란에서 나왔다고 하여 金姓을 칭했다’는 『개황력』의 기록과 구형왕이 ‘양 중대통 4년(532) 임자에 신라에 항복했다’는 『개황록』의 기록이 그것이다.

따라서 『개황력(록)』 편찬시기로 이 설의 성립연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견해들이 도출되었는데, 특히 문무왕대(661~680)설과 개황년간(581~600)설 등이 주목된다.

먼저 문무왕대설을 보면, 문무왕대를 전후한 시기에 김유신·문명왕후(문희) 등 가야계 후손의 정치적 비중이 절정에 달하고 금관소경도 설치되었으므로, 가락국의 역사가 문자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개황은 수나라 문제의 연호이고 김유신이 개황 15년(595) 을묘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개황록(력)은 김유신과 관련하여 문무왕대 전후에 편찬되었고, 그 내용에는 수로신화를 비롯한 가락국 왕력이 포함되어 있었으리라는 점이다.⁶³⁾

한편 김유신의 사망 후 문무왕이 그의 본관지인 남가야를 소경으로의 승격하였을 당시(680) 금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견해로서, 전설상의 소호김천의 자인 該가 金官을 관장한 것을 모델로 해서 소경의 명칭을 금관으로 하고 이것을 소급시켜 옛부터 금관국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김유신의 대활약과 춘추·법민 부자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 통일 사업이 일단락 된 문무왕의 시대에 논공을 하면서 수훈인 김유신 본인은 물론 그의 조·부까지 추증되어 재평가됨과 함께 그의 씨족, 祖先에 대한 격상과 미화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에 문무왕이 관여한 것은 남가야의 외래계를 모계로 하는 문무왕 자신에게 있어 남가야계의 격상은 혈통이 중시되는 폐쇄적 골품사회인 신라에서 자기의 출자를 미화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미화작업에는 『개황록(력)』도 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므로, 문무왕대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다음으로 수나라 개황 연간인 581~600년에 『개황록(력)』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로서, 그 골자는 이미 김유신비에서 시조의 출자를 소호김천씨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문무왕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금관 가야계에 의해 私적으로 편찬된 금관가야의 역사서라는 설이다.⁶⁵⁾

63) 김태식, 『가야의 사회발전단계』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0, p. 55.

64) 이용현, 『가야의 김씨와 금관국』 『사충』 48, 1998.

65) 이문기, 위의 논문(2004), p. 23.

그런데 신라가 중국의 연호를 처음 쓰게 되는 것이 진덕여왕 4년(650)이므로 수대의 연호를 차용하여 책의 이름으로 삼는 것이 가능했을까 라는 자문이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개황력』이라는 책이름으로 보아 그것이 수 문제 개황 년간에 편찬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것은 당시 신라가 건복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중국 연호의 사용은 진덕여왕 4년(650)의 일이므로, 『개황력』은 적어도 그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⁶⁶⁾

이들의 견해에 따른다면, 금관가야의 왕대력을 편찬하면서 수나라 연호인 개황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금관가야의 왕대력을 『개황력』 내지는 『개황록』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김유신이 수나라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으로, 김유신은 문무왕의 외가이고, 자신의 선조에 대한 역사를 편찬하면서, 당에 대한 저항 의식에서 수대의 연호를 혹 연대기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아닌가 한다. 그것은 그가 수나라 유학승 원광법사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사상적 형성을 이루었고 활동을 하였던 데서도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⁶⁷⁾

IV. 맺 음 말

김유신은 수나라가 중원을 지배할 때 태어나 원광법사 등 수유학승들의 깊은 영향을 받아,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구체적인 병법들에 달통함으로써 훌륭한 장수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는 수와 당이 교체되는 정국에서 원효 등 반당의식이 투철하였던 인물들과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무열왕과 문무왕의 2대를 섬기면서 군령권을 가진 대장군으로서 결과적으로 일통삼한이라는 꿈을 이루어 낸 것이다.

그런데 그는 『개황록(력)』 등 수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역사서에 나온다는 점이

66) 김태식, 『가야의 사회발전단계』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0, p. 55.

67) 김복순, 위의 논문(2006. 9)에서 『삼국사기』 등에서 수나라와 관련된 안함 등의 사료가 착종된 것은 당과의 관계로 인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유신과 원광법사 등이 수와 관련된 내용 역시 생략되었을 것인데, 『개황록(력)』 등이 전해져 이를 밝힐 수 있었다.

다. 그 편찬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하나, 그가 수나라 유학승들의 영향을 받아 사상적 형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인 금관가야를 현창하는 왕대력을 개황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라인이라는 투철한 의식이 나당연합과 나당전쟁에 있어 반당의식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의는 신라를 보위하는 자주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